

영화산업전기(주)

계기용변성기(M.O.F, C.T, P.T) 전문생산(수출) **45年**

“대한민국의 변성기(MOF,CT,PT)

선도기업으로서주어진 책임을 다한다.”



국내의 대표적인 계기용 변성기(MOF,CT,PT) 전문생산 및 수출업체인 영화산업전기(주)(대표이사 공호영)는 1962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45년 동안 국내 변성기 품질의 선진화를 목표로 국내 변성기업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장인기업이다.

영화산업전기(주)는 생산전품목 KS표시허가 / ISO9001/ EM / 품질 경쟁력 우수 50대중소기업기업 /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/ 벤처기업 / 한국전력선정 유망전력벤처기업 / INNO-BIZ기업 /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으로 선정이 되었으며,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에 있어서도 그 공로가 인정되어 2004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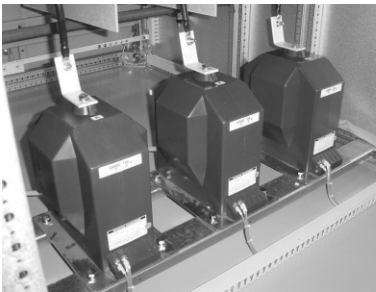
45년간 ‘장인정신’으로 신뢰받는 제품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영화산업전기(주)는 1996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함으로써 “차세대 변성기”라 할 수 있는 전자식변성기(EVT, ECT) 개발, 광센서를 이용한 광TYPE의 변성기 개발 등 소비자의 만족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이미 1995년과 2000년도에 세계적인 국제공인 중전기 시험연구소인 KEMA(네덜란드 소재)에서 12KV 및 24KV급 CT 및 PT 9기종에 대하여 ‘CERTIFICATE OF TYPE TEST’를 획득하여 국제적으로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,

국내적으로는 2003년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 국가공



▲ CT, PT류



▲ 24KV MOLD형 PT1



▲ 24KV MOLD형 MOF

“45年の 장인정신으로 신뢰받는 제품생산”

인시험기관(KERI) 으로부터 변성기업계 최초로 ‘신뢰성평가인증’ 을 획득 하였다.

‘신뢰성평가인증’ 이란 예를들어 24KV 계기용 변압기는 과전압(사용전압의 1.4배)을 121일간 연속적으로 인가하여 부분방전특성 및 비오차를 포함한 모든 전기적 특성에 이상이 없을 때, 기대수명을 15년으로 예측하여 기기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TEST이다.

22.9KV급 EPOXY MOLD형 MOF는 오랜 기간동안의 현장설치시험을 통하여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됨에 따라 국내 지하철 전구간 , 정부종합청사, 63빌딩, 한국전력공사 사옥 등 고품질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중요 프로젝트에만 공급이 되어왔던 제품으로 기존의 유입형 MOF에 비하여 부분방전특성을 포함한 여러 전기적 특성 및 내구성이 상당히 우수하며, 특히 선로의 사고 발생시 화재발생 및 폭발의 위험을 극소화한 제품으로 현재 신뢰성인증 TEST중이라고 한다.

경영에서도 품질 및 기술경쟁력 못지않은 탄탄함과 건실함을 과시한다. 창업 이래 은행부채 없이 자기자본만으로 운영해 온 결과 45년의 긴 기업 역사에 비하여 외적으로 큰 성장은 거두지 못하였으나, 제2의 IMF라고 하는 어떠한 경제적 악조건 하에서도 “책임을 지는 기업”을 유지하기 위하여 창업이후 외부로부터의 차입경영은 절대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.

또한, 금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체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 최신 전자동진공주형설비를 독일의 HUBER사에 발주하여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는 물론 품질향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.